

# 미국 경제 '반전'...올해 성장률 'G7 1위' 전망

### 성장률 2.8%로 '유일한 2%대'...증시도 월가 전망치 '훌쩍' 카드 대출 디폴트는 2010년 이후 최고...저소득층 '빨간불'

연초 일각의 침체 우려와 달리 올해 미국 경제는 주요국 가운데 두드러진 성장률을 기록했고 증시 랠리도 월가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 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올려 2.8%로 제시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IMF의 성장률 전망치가 2%를 넘긴 곳은 미국이 유일하며 캐나다

(1.3%), 프랑스·영국(각각 1.1%)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0.3%, 독일은 0%에 그쳤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상반기까지 이어졌고 하반기 들어 노동시장과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있었지만 성장 엔진은 식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이 일부 둔화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자산 가치도 오르면서 미국 가계의 부는 사상 최고를 찍었고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주요 주가지수인 스탠더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인공지능(AI) 붐 속에 최고가를 연거푸 경신하며 올해 25.18% 상승, 대다수 금융기관의 전망치를 뛰어넘은 상태다.

S&P500 지수가 지난해 24.23%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올해에는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지만, 연초에 이미 월가의 평균 전망치를 넘어섰고 대부분 기관이 전망치를 수정해야 했다.

최근 2년간 지수 상승률은 닷컴 버블 당시인 1997~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초 올해 S&P500 목표치로 4800을 제시했다가 6000으로 조정된 미국 투자사 에비코어 ISI의 줄리언 이매뉴얼은 랠리에 대해 "기적적인 요인이 있다"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이러한 추세가 더 길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집계를 보면 금융기관 19곳 가운데 내년 주가 하락을 예상한 곳은 없었으며, 가장 낙관적 견해는 S&P500 지수가 현재 5970.84보다 19%가량 높은 710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감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경제 성장 지속과 낮은 실업률, 중국의 경기부양 의지 등이 증시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대출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이 심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융정보업체 벵크레그 데이터 자료를 인용해 신용카드 회사들이 올해 1~

9월 심하게 연체된 대출액 가운데 약 460억 달러(약 67조 6000억원)를 상각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것이지 2010년 이후 최고라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약제가 될 수 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고금리 여파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았으며, 제조업체들도 높은 조달 비용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등 상위 10개 주식은 2022년 10월 이후 S&P500 상승분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랠리가 일부 주식에 편중된 것도 부담이다. /연합뉴스

## 세계 정상들 '제주항공 참사' 애도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명 피해 깊은 슬픔...필요한 모든 지원 제공" EU 집행위원장 "희생자 가족·국민에 애도...슬픔의 시기 함께 할 것"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영부인) 질과 저는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가까운 동맹으로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며 "미국은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항공기 추락사고 이 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희생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적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엑스에서 "대한민국 무안군의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며 "생명을 잃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 이번 사고 피해

자의 유족과 한국 국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 슬픔의 시기에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엑스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한국과 태국 국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는 데이비드 레이 외무장관의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자국민 2명이 숨진 태국의 파똥탄 친나왓 총리는 엑스에서 이번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했으며 외무부에 즉시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한국 여객기 사고에 관해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시 주석은 "삼가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희생자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희생자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가 속히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위로의 메시지를 내 "한국에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하루라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007년 2월 가나의 세벨루루에서 몸에서 벌레를 제거한 어린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왼쪽).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왼쪽에서 두 번째)가 1979년 11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이란 자금을 차단하는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퇴임 후 더 빛난 美 대통령, 별이 되다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 중동 '캠프데이비드 협정' 중재 한반도와 오랫동안 깊은 인연

제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고향 마을 플레인스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던 중 별세했다. 향년 100세.

고인은 이날 오후 3시45분께 별세했다고 미국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과거 암 투병을 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2월에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가정에서 호스피스와 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98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재임 기간 미국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선

에도 실패했지만, 퇴임 후 평화 해결사로 활약해 '가장 위대한 미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한반도와도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62년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쟁자가 부정선거로 낙마, 극적으로 의원직을 거머쥐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조지아주 지사를 거쳐 1976년 대선에서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현직인 공화당 소속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을 누르며 대통령이 됐다.

재임 기간 대표적 치적으로는 '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 불리는 중동 평화 협정 중재 성공이 꼽힌다. 1978년 9월 안와르 사다트 당시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 협정 체결을 주선했다. 이 역사적인 협정은 이듬해 3월 양국이 적대행위를 끝낸다는 조약 체결로 이어져 수십년간 이어져 온 중동 갈등을 막고 중동 평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1970년대 경기 침체에도 물가가 오르

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고, 인권을 앞세운 도덕주의 외교 정책도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퇴임 이듬해 세운 카터 센터를 바탕으로 평화·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신장,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며 재임 기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나는 전직의 시대를 구가했다.

그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돕는 봉사단체 '해비타트 프로젝트'(사랑의 집짓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카터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은 대표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꼽힌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의 한국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반발한 박정희 정권과 각을 세웠다. 그는 2018년 3월 회고록 '지미 카터'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핵무장 등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과 충돌한 1979년 6월 방한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동맹국 지도자와 가진 토론 가운데 가장 불쾌한 토론"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